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쇄빙형 LNG선 수주 이슈

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중 한 곳이 러시아 에너지기업 Novatek으로부터 쇄빙형 LNG선 4척을 수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. Novatek이 발주할 총 7척 중 나머지 3척은 중국의 Hudong-Zhonghua Shipbuilding이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됨. Novatek이 바라는 인도시기는 2023년으로, 8월 중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현대미포조선, 피더 컨테이너선 추가 수주 이슈

현대미포조선이 곧 피더 컨테이너선을 추가 수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. 시장 관계자들은 현대미포조선이 1,800~3,000TEU급 컨테이너선 인콰이어리를 상당 수 받아놓고 있으며, 현대미포조선에 피더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큰 선사로 CMA-CGM, AP Moller-Maersk, 장금상선, 남성해운, SM상선 등이 있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美 GE와 3600억 규모 항공기 엔진부품 공급계약

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GE와 약 3억2000만 달러(약 3600억원 규모)의 항공기 엔진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.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GE의 주력 엔진인 GEnx를 포함해 GE90, LM2500 등의 다양한 민수·군수용 엔진부품 총 72종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. (파이낸셜뉴스)

## 한화시스템, 美 위성 안테나 기업에 330억원 투자

한화시스템이 미국 위성 안테나 기업 '카이메타'에 3,000만달러(약 330억원)를 투자한다고 보도됨. 카이메타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움직이면서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식 위성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 알려짐.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(CFIUS)는 25일 한화시스템의 카이메타 투자를 승인했다고 보도됨. (조선비즈)

## HMM and Hyundai yards team up to develop green ammonia supply chain for shipping

한국조선해양과 HMM, POSCO, 한국선급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린 암모니아 해상운송 및 병커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됨.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향후 암모니아 해상운송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Adnoc ready to give green light for blue ammonia project in 2022

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(Adnoc)는 대형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한다고 보도됨. 미국의 EPC업체 Wood가 Pre-FEED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됨. Adnoc는 블루 암모니아 공급 사업의 상업성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투자승인(FID)은 2022년, 예상 가동일은 2025년이라고 보도됨. (Upstream)